

東仁의 第二期小說考

— 東仁小說의 年代的 研究 (2) —

金 永 和

內 容

I 序

II 背 景

III 作 品 論

(1) 遺書 (2) 明文 (3) 감자 (4) 其他

IV 洗練과 深化

V 結

I 序

東仁의 小說을 年代的으로 考察함에 있어서 筆者는 그것을 5 期로 分類한 바 있다.¹⁾

第 1 期에 屬하는 作品은 1919年 創造 發刊과 더불어 發表된 『弱한 者의 슬픔』에서부터 1924年 『거치른 터』가 發表될 때까지, 그 사이에 나온 10 篇이 여기에 該當된다.

이들 小說은 그 形式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形式에 얽매이지 않고 多樣하게 實驗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우선 日記體, 手記體, 便紙體의 形式을 빌어서 쓰기도 했고, 視點에 있어서도 全知的 立場에서 쓰여진 것, 나레이터가 登場하여 主人公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의 手記를 읽는 形式으로 되어

1) 拙稿: 東仁의 第 1 期 作品考, 濟大學報 10號 1968. PP. 167~168.

있는 것, 그리고 1인칭으로 쓰여진 것 등이 있다.

內容은 當時 우리 社會에 밀려 들어온 外來의인 것에 盲目的으로 追從하는 일의 어리석음을 얘기한 것이 主調를 이루고 있다. 대체로 20前後의 젊은이들을 登場시켜 이들이 얼마나 外來의인 것에 쉽게 말려 들었으며 그 結果 어떤 悲劇을 가져왔느냐 하는 데 焦點이 모아졌다. 이를테면 『약한 者의 슬픔』이나 『마음이 열린 者』 등의 作品에서 이런 面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筆者는 이 글에서 東仁의 第2期에 屬하는 作品들을 考察하여 東仁의 小説이 어떻게 변모되어 갔는가를 探索해 보려고 한다.

Ⅱ 背 景

東仁小説의 第2期는, 第1次 放蕩에서 피곤한 心身을 休息하고 나서, 1924年 8月 靈台를 發刊하여 『遺書』를 發表한 后부터 1929年까지 5年 사이에 發表된 作品이 해당된다.

이 時期에 東仁은 그 生涯에 있어서 하나의 轉機를 가져온 일들이 일어났다.

1925年 여름부터 東仁은 女人(妓生)들과 더불어 放蕩한 生活이 始作되고 그 結果 많은 財産을 탕진하게 되었다. 東仁은 이 때 小説 製作을 中斷하고 損失을 본 財産을 挽回하기 위해 水利事業에 손을 대었다가 그것도 실패하고 말았다. 이 水利事業의 실패는 많은 빚을 얻게 되고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남아 있는 재산을 全部 處分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위에 1927年 가을, 東仁의 妻는 財産을 處分하고 남은 現金까지 갖고 出奔하고 말았다. 富豪의 아들로 태어나 經濟的 苦痛을 모르고 살아왔던 東仁에게 經濟的인 沒落과 妻의 出奔은 致命的인 타격이었다. 자포자기와 墮落과 그리고 失意속에서 映畫興行에 손을 대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도 뜻대로 안되자 그는 外部와의 一切의 접촉을 끊고 自己內部 속으로 들어가 失意에 빠져 있는 自身과 鬭爭하여 결국 自己救出에 成功했다. 그리하여

1929年 여름 第二夫人과 約畵을 하게 되었다.

이때에 新小說 以後의 韓國小說을 整理하는 意味에서 『韓國近代小說考』를 쓰고 그때까지의 女人(主로 姦生)과의 關係를 告白하는 自傳的인 小說『女人』을 製作했던 것이다. 이것은 그 人生에 있어서나 그의 文學에 있어서 한 時期를 劃하는 結果가 되었다.

東仁의 第二期는 가장 旺盛한 作品活動이 可能했는데도 製作된 作品은 적은 셈이다.

그러나 第二期는 第一期에서 여러 가지로 實驗해 오던 形式에서 한걸음 앞서 東仁나름의 獨特한 小說手法을 보여 주었고 主題面에 있어서도 第一期 보다 人間을 더 깊이 응시하고 考察하고 있다.

더우기 文章面에 이르러서는 第一期에서 보여 주던 漢文式 文章이 상당히 除去되고 文章이 洗練되어 있다.

그리고 東仁은 第二期에 들어서면서 強烈한 東仁味가 있는 作品, 말하자면 文體나 表現形式에서 東仁만의 獨特한 것을 模索하고 있는데 東仁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東仁에게는 東仁의 作風이 있고, 想涉에게는 想涉의 作風이 있어서 비록 作者의 이름을 記入치 않은지라도 全作을 讀破한 뒤에는 東仁의 作을 想涉의 作으로 誤認할 사람은 없을 것이요, 想涉의 作을 東仁의 作으로 誤認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뿐으로 滿足할 수가 없었다.

全作의 任意의 一行을 읽고라도 『이는 東仁의 作이며 東仁만의 作』이라고 認識할 수 있을 만한 強烈한 東仁味가 있는 독특한 文體와 表現方式을 發明치 않고는 滿足할 수가 없었다.²⁾

한 作家가 獨特한 스타일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보다 作家로서의 自

2) 金東仁：韓國近代小說考「東仁全集 8卷」P. 603.

已主張과 作家意識의 表出이라고 볼 수 있다.

東仁은 第一期에서 形式面에 있어서나 文章面에 있어서 實驗을 繼續하면서 자기의 독특한 스타일을 模索하다가 第二期에 들어서면서 그러한 努力이 結實을 보게 된 셈이다.

Ⅰ 作 品 論

(1) 遺 書

遺書는 이러한 시기에 쓰진 最初의 作品이다.

『1924年 8月『創造』殘黨들이 모여서 靈台를 發行하였다. 거기『遺書』를 썼다. 처음에 無意識하게 써 나가던 나는 어떤 때에 우연히 그『遺書』가운데 強烈한 東仁味를 發見하였다. …[略]… 나는 마침내 東仁만의 文體, 表現方式을 發明하였다.³⁾

東仁 스스로의 말대로『遺書』에 와서는 第一期 作品에서 發見되던 漢文體 文章이 除去되고 東仁의 個性을 느끼게 하는 文體가 나타나고 있다. 對話에 있어서도 第一期에서 보여 주던 不自然스러움이 比較的 덜하다. 이것은 오직『遺書』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遺書』以後의 作品에 共通의으로 나타난 現象이다. 특히 문장에 있어서는 점차 洗練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內容은 한 나약하고 性格이 弱한 畫家가, 아내의 不義 때문에 苦悶하고 있는 것을 畫家의 親舊인「내」가 나서서 不貞與否를 調査하고 結局 화가의 아내가 六寸오빠와 密通하는 事實을 알자 그녀를 죽여 버린다는 얘기다.

東仁이 이 小說에서 가장 關心을 가진 人物은 畫家도 畫家의 아내도 아

3) 金東仁：韓國近代小說考「東仁全集8卷」P. 604.

넌 화가의 친구이자 탐정역할을 하고 있는 「나」이다. 이 「나」라는 人物은 東仁의 體臭을 強하게 느끼는 인물이고 이 人物을 통해서 東仁은 다음과 같이 人間에 대해 專斷的 宣言을 한다.

한 귀한 사람을 구원키 위하여 한 변변치 않는 사람을 희생하는 것은 결코 그 른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

貴한 人物을 爲해 변변치 않는 인물은 犧牲해도 좋다는 것이 이 小說에서 作家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고 실제 畫家인 「O」의 不幸을 막기 위해 그의 아내인 「봉선」을 죽게 한다.

여기서 우리는 東仁의 하나의 思想을 엿보게 된다. 東仁은 人間을 貴한 人物과 貴하지 않는 人物로 나누었다는 點, 그리고 貴하고 貴하지 않는 基準을 이 小說에서는 藝術家냐 아니냐에 두었다는 點이다.

「O」라는 畫家は 하나의 人間으로 볼 때에는 너무 나약해서 자기 아내의 不貞을 자기 힘으로는 處理할 能力이 없는 人物이다. 이런 인물임에도 不拘하고 貴한 人物이라고 한 點은 이 小說로 미루어 보아 그가 畫家(藝術家)라는 데 있다.

O의 아내? 그런 변변치 않은 여편네 하나는 죽든 살든 아무 상관 없으되 아까운 재주를 품은 O뿐은 결코 타락시키고 싶지 않았다. <傍點=筆者>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아까운 재주」 하나만을 가졌다는 것으로 東仁은 貴한 人物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東仁이 人間을 너무 편파적으로 보는 점이 없지 않지만 東仁이 藝術家에 對한 好意와 그 自身 藝術家임을 은근히 자랑하는 態度를 엿보게 된다.

그리고 이 小說에 登場하는 「A」라는 人物은 東仁의 以前 作品에서는 그 類型을 찾을 수 없는 特異한 人物이다. 「A」는 倫理的으로나 外形에 있어서나 아주 破格의 人物이다. 「여편네라기만 하면 친구의 아내고, 친척의

아내고 혹은 여학생이고 과부고 구별을 안하고 건드리는 人物로 되어 있다. 심지어는 六寸 누이 同生과 密通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 外形도 아주 特異하게 그려져 있다.

몸이 여섯자에 가까운 대남자로 얼굴이 끝까지 검고 우둘우둘하고 그 시꺼먼 얼굴 가운데 하얗고 커다란 두눈이 빛을 받아서 어른거린다. 전설에 나오는 「거인」은 이러한 것이 아닐까?

이것은 平凡을 싫어하는 東仁의 浪漫的 要素가 은연중에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東仁은 이 小說에서 作中人物의 心理描寫를 일체의 설명을 생략하고 作中人物이 그린 그림 속에 그 인물의 心理를 描寫하는 獨特한 方法을 提示하여 效果를 거두고 있다.

그의 그림은 예수가 사십일 동안을 광야에서 단식을 할 때에 마귀가 떡을 가지고 와서 찢는 敍인이었다.

사람으로서의 극도의 주림과 피로움과 및 그것을 쳐 물리치려는 경건한 衞을 O(畫家=筆者註)는 그리려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그림속에 나타난 예수의 표정은 어머하였다. 고민은 확실히 나타나 있었다. 그러나 경건하고 참되고 굳세어야 할 예수의 표정에 의심과 증오와 악독함을 볼 때 나는 오히려 놀랐다.

이것은 畫家(O)가 그의 아내의 不貞與否를 確認하기 前 疑心과 증오에 쌓여 있을 때의 그림이다. 作家는 직접 화가의 심리를 描寫하는 대신 作中人物이 그린 그림을 통해 畫家의 心理狀態를 表現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東仁은 心理描寫의 한 進境을 보여 주고 있다.

(2) 明 文

이 作品은 1925年 1月 開關에 發表된 作品이다.

이 作品에서 東仁은 典型的인 Story-teller 의 모습을 느끼게 한다.

作中現實을 描寫하는 것이 아니라 作家는 이야기꾼이 되어서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를 口頭로 들려 주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고 있다. 讀者는 作中人物들의 생각과 行動을 直接 對하는 것이 아니라 作家가 얘기하는 內容을 그대로 듣는 것으로 그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作家의 목소리는 약간 빈정거리는 語調에 차 있다.

作家가 作中人物를 보는 態度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첫째는 主人公을 肯定하는 입장, 둘째는 主人公을 肯定도 否定도 하지 않는 觀察者로서의 客觀的立場, 셋째는 主人公을 否定的으로 보아 이를 叱責하거나 嘲笑하는 立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東仁은 이 小說에서 主人公을 보는 눈이 嘲笑에 가득 차 있다. 도처에서 主人公의 어리석음을 嘲笑하는 作家의 얼굴을 느낀다.

예수교 信者인 「田主事」는 예수교를 反對하는 아버지(田聖徹)에게 집에서 쫓겨나자 장사를 한다. 장사는 意外로 成功을 거두고 돈을 많이 모으게 되자 그 돈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教會에 寄附한다. 그러나 이틀 안 아버지는 기부한 돈을 찾아다가 아들에게 傳하면서 다시는 아버지의 이름을 팔지 달라고 한다. 「田主事」는 아버지 몰래 그것을 다시 教會에 寄附하고는 아버지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여호아에게 빈다. 歲月이 흐르고 「아버지」가 病들어 죽자 많은 財産을 相續받은 「田主事」는 많은 돈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부하여 公會堂을 짓게 한다.

이렇게 아버지와와의 問題는 解決되었지만 이번에는 남아 있는 어머니가 말썽이 된다. 「田主事」內外가 40이 되도록 子息이 없자, 이것을 「어머니」는 예수를 믿은 탓이라고 아들 夫婦를 痛駭한다. 그리하여 下女 中에서 얼굴이 반반한 女子를 「田主事」의 방에 들여 놓기까지 한다. 田主事는 이 딱한 事情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으로 위로를 받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점점 노망하게 되어 집에서 부리는 下人들에게까지 놀림과 수모를 받게 된다. 이것을 안 田主事는 어머니가 이 以上 더 산다는 것은 어머니의 명예를

爲해 오히려 좋지 않다는 결론을 얻고 어머니를 毒殺한다.

이리하여 「田主事」는 現世에서는 「존속 살해범」으로 死刑言渡를 받게 되고 죽어서 天堂門을 두드렸으나 天堂에서도 天堂의 明文에 依해서 地獄으로 몰아 버린다는 이야기다.

東仁은 여기서 盲目的인 예수교 信者를 통박하고 人間의 어리석은 判斷은 그것이 아무리 善意의 것일지라도 용서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다. 그리고 盲目的인 觀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暗示하고 있다.

전주사는 어떻게든 어머니를 처치하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참말 어머니의 삶은 아무 價値가 없는 것입니다. 전주사 자기는 이 세상에 독일이란 나라가 있고 거기 벨린이란 서울이 있는 것까지 아는데 어머니는 배국이란 나라가 어느 쪽에 붙었는지 그것조차 모릅니다. 이런 가련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뿐 아니라 노망하기 때문에 자기 집안의 부업이 어느 쪽에 붙었는지까지 간간 잊어버리는 일이 있고…(略)… 그리고 중늬 중년들에게까지 주먹질이나 받고… 그와 같은 사람은 하루를 더 살면 그만큼 자기 모욕의 행동이라고 전주사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는 자기 어머니와 같은 사람은 떠나 버리는 것이 떠나는 자기를 위함이고, 또 남을 위함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어머니께 효도를 하기 위해서 하루 바빠 어머니를 저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라고까지 생각하였습니다. 정말 사면에서 육보는 어머니의 모양은 마음 착한 전주사로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田主事』의 盲目的인 信仰은 도저히 容納될 수 없는 母親殺害를 敢行하고도 조금도 罪意識이나 良心의 苛責을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이 孝道라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이 小説은 「田主事」라는 基督教 信者의 盲信과 無知에서 오는 悲劇을 얘기한 것이다. 人間의 無知와 盲信이 어떤 悲劇을 가져 오는가를 말하고자 한 것이다.

이런 無知는 어디서 온 것일까. 그것은 「田主事」가 基督教의 本質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온 것이다. 기독교를 믿게 된 動機부터 아주 單純하다. 「우연히, 어느날 예배당이라는 데 가서 講道를 듣고 문득 자기네

의 삶이 理想이라는 것을 모르고 將來라는 것을 無視한 데 놀라」 그날부터 예수교인이 되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예배당의 講道에서 삶에 대한 理想과 未來(來世)에 대한 幻想을 갖게 된 데서 기독교 신자가 된 것이다.

이런 現象은 韓國에 기독교가 傳來될 때, 그 本質을 파악하기에 앞서 맹목적으로 來世의 救援만을 생각한 데서 온 것이다. 기독교의 本質을 파악하기 前에 自己流로 기독교를 해석하고 그것을 盲信한 데서 빚어진 悲劇이다.

基督教이 처음 韓國에 傳來될 때 盲目的 受容이 없지 않았다. 아직도 意識構造는 從來의 샤머니즘의 世界에 있으면서 새로운 宗教를 받아 들었다. 거기에서 생기는 副作用과 混亂은 하나의 커다란 問題點이었다.

儒教的 信仰觀이나 샤머니즘의 土俗信仰에 젖어 있던 韓國人에게 새로 기독교가 전래되었다고 해서 意識構造까지 바뀌어진 것은 아니었다. 샤머니즘적 土俗信仰의 對象으로서의 神이, 基督教의 神으로 바뀌어졌을 뿐,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는 제대로 把握하지 못한 채 信仰되었던 것이다.

東仁의 집안은 基督教을 信奉했다. 그의 아버지는 教會의 長老이기도 했다. 그러나 東仁은 기독교의 신자가 되는 것을 拒否했다. 그것은 그의 天性에서 온 오만 탓이기도 했지만 初期 韓國 기독교가 빚어내는 여러 가지 모순과 副作用을 體驗했던 때문이다.

東仁은 이 小說을 통해 宗教에 對한 하나의 見解를 表白했다고 보아도 좋다.

이 作品은 短篇이 가지는 「人生의 斷面」을 提示한 것이 아니라 長篇에서처럼 「人生全體」를 提示하고 있다. 그리고 몇 10年의 파란충첩한 이야기들을 一瀉千里로 叙述해 내려가고 있다. 때문에 여기에 登場하는 人物들의 모습이 具體的로 우리에게 愛될해 오지 못하고 있다.

金東里가 「氏는 모든 作品에서 作中人物의 住所, 姓名과 略歷을 提示하기엔 充實하나 그 反面 그들이 한 시간 前에 먹고 나온 된장찌개 냄새라

4) 金治洙: 東仁의 唯美主義와 리얼리즘再考. 文學思想. 2 (1972.11) P.273.

든가 지금 곧 끊고 싶은 영등의 분스럽 같은 것에 대하여는 지극히 등한한다. 따라서 氏의 모든 作中人物은 作家가 計劃한 플롯에 服從하기 위하여 讀者에게 아무런 심장의 고통도 生命의 비밀도 추삭여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暎상 以上の 친분을 맺을 수가 없다⁵⁾고 지적한 것은 이런 데서 나온 結果이다.

이 小説은 「田主事」라는 主人公이 18살부터 40가까이,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를 200字 原稿紙 63枚에 叙述해 내려 갔다. 때문에 必然的으로 人物을 暎상式으로 表現하게 된 것이다.

이런 手法은 비단 이 作品 뿐 아니라 『감자』, 『송동이』, 『雜草』, 『論介의 還生』, 『金研實傳』, 『곰네』, 『김덕수』, 『송침지』등의 作品에 一貫되어 흐르고 있다. 그런 意味에서 東仁味를 보여 주게 하는 作品인지도 모른다.

(3) 감 자

이 作品은 1925年 1月 朝鮮文壇에 發表한 作品이다.

이야기는 「복녀」라는 한 女人의 타락해서 죽을 때까지의 一生을 그린 小説이다.

우리가 이 小説에서 東仁이 얘기하고 싶은 眞意를 探索하기 위해서는 『복녀』의 타락과 죽음을 규명하는 데 있을 것이다.

이 作品에 대해서 趙演鉉은 「복녀」가 처음 타락하게 된 動機가 生活難에서 오는 經濟的인 打開을 위한 것이 「唯一의 口實」이 되었다고 하고, 「복녀」가 일단 타락한 후에는 자기의 賣淫에 대해서 조금도 倫理的 苛責이나 苦惱를 느끼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다.⁶⁾

그리고 千二斗도 「貧困이란 不可抗力의 條件 때문에 本意 아닌 姦通을 하게 되었다」⁷⁾고 해서, 타락하게 된 동기가 가난에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 또 이 作品이 發表되던 당시의 푸로레타리아 評家들도 그 동기를 역

5) 金東里：文學과 人間. 서울 青春社. 1952. P. 27.

6) 趙演鉉：韓國現代作家論. 서울 文明社. 1970. P. 242.

7) 千二斗：韓國現代小説論. 형설출판사. 1969. P. 27.

시 가난에 둔 것 같다.⁸⁾

「복녀」가 타락하게 된 表面上의 동기는 가난 때문이다. 「복녀」가 가난 하지만 앓았던들, 貧民窟에만 살지 않았던들, 더우기 송충이 잡이만 가지 않았던들, 「복녀」는 타락하지 않았을는지 모른다. 그런 面에서 볼 때 「복녀」의 타락의 原因은 가난에 있다.

그런데 「복녀」가 가난 때문에, 말하자면 經濟的 해결을 하기 위해 타락했다면, 복녀는 타락의 代價로 얻게 되는 經濟的 해결에 만족했을 것이다.

그러나 「복녀」는 처음으로 남편 아닌 딴 사내에게 몸을 바치고 난 후 이런 생각을 한다.

그는 아직껏 딴 사내와 關係를 한다는 것을 생각하여 본 일도 없었다.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요, 짐승의 하는 짓쯤으로만 알고 있었다. 혹은 그런 일을 하면 타 죽어지는지도 모를 일로 알았다.

그러나 이런 이상한 일이 다시 더더 있을까. 사람인 자기도 그런 일을 한 것을 보면 그것은 결코 사람으로 못할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일 안하고도 돈 더 받고, 긴장된 유쾌가 있고, 벌어먹는 것보다 점잖고…. 일본말로 말하면 삼박자가 갖은 좋은 일은 이것 뿐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삶의 비결이 아닐까.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있는 뒤부터 그는 처음으로 한개 사람이 된 것 같은 자신까지 얻었다.

「복녀」는 經濟的 解決 그것보다도 自己가 이제까지 간직하고 있던 道德觀이 無用한 것임을 깨닫고 「처음으로 한개 사람이 된 것 같은 自信까지 얻게」된다.

따라서 作者는 「복녀」가 가난 때문에 道德的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복녀」가 이제껏 지니고 있었던 道德觀(貞操觀)이 한낱 抽象的이고 觀念的인 것에 지나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말하자면 貞操를 지키는 데서 오는 精神的 價值(道德的價值)를 認識하지 못하고 그것을 物質的으로만 해석하는 無知를 이야기 한 것이다.

8) 金東仁: 群盲無象 「東仁全集10卷」 弘字出版社, 1967, P. 313.

만일 作家가 「복녀」가, 가난 때문에 타락한 것을 얘기하고 싶었다면 「복녀」가 처음 타락하게 되는 기자묘 술밭에서 송충이 잡이를 하는 場面이 이 作品의 中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作品의 中心은 「복녀」와 中國人 「왕서방」과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감자밭의 場面부터이다.

「복녀」는 송충이잡이 人夫 감독에게 몸을 바친 후 「처음으로 한개 사람이 된 것 같은 自信을 가지고」 정조를 지키는 데서 오는 道德的 價値를 認識하지 못한 채 賣淫行爲를 繼續한다. 이 때부터 「복녀」의 道德觀은 急激하게 變한다. 지금까지는 貞操를 지키는 데서 오는 道德的 價値의 所重함을 이해해서 지킨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뜨리게 될 때 생기는 「탁 죽어지는 지도 모르는 일」이 두려워서 지켜 왔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정조를 지키는 것은 한낱 價値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리하여 누구에게나 몸을 맡겨도 조금도 罪責感을 못 느낀다.

이것은 그의 男便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白痴에 가까운 그의 男便도 貞操를 지키는 데서 오는 道德的 價値를 理解할 만한 人物이 못된다.

「복녀」는 감자밭에 감자를 훔치러 갔다가 中國人 「왕서방」에게 들키고 「왕서방」에게 몸을 바치고서는 「花代」로 3원까지 받고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 后부터 「복녀」와 「왕서방」과의 사이는 夫婦關係와 마찬가지로 生活을 한다. 「복녀」의 남편이 있지만 「왕서방」과 「복녀」의 夫婦關係에 男便은 조금도 妨害되지 않는다. 따라서 「왕서방」은 「복녀」에게 있어서 단순히 花代를 받는 「손님」일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왕서방」과 여러차례 관계하고 난 后부터 『복녀』는 차차 동네 거지애들한테 애교를 파는 것을 中止해 버렸다.

이것은 두가지 意味로 해석할 수가 있다. 첫째는 「왕서방」이 주는 돈만으로도 充分히 經濟的 解決이 可能했기 때문이라는 것, 둘째는 「복녀」가 「왕서방」에게 本能的인 愛情이 생긴 때문이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왕서방」이 새색시를 얻게 될 때 「복녀」의 心理의 推移를 더듬어 보면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겨울도 가고 봄이 이르렀다.

그 때 왕서방은 돈 백원으로 어떤 처녀를 하나 마누라로 사오게 되었다.

「홍!」

복녀는 다만 코웃음만 쳤다.

「복녀 강짜 하갸구만」

동네 여편네들이 이런 말을 하면 복녀는 흥하고 코웃음만 웃고 하였다.

내가 강짜를 해? 그는 늘 힘있게 부인하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생기는 검은 그림자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놈, 왕서방 네 두고 보자」

왕서방이 새색씨를 데려오는 날이 가까웠다. 왕서방은 아직껏 자랑하던 길다란

머리를 깎았다. 동시에 그것은 새색씨의 의견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홍!」

……略……

밤이 깊도록 왕서방의 집에는 중국인들이 모여서 별한 악기를 뜰으며 노래하며 야단하였다. 복녀는 집모퉁이에 숨어 서서 눈에 살기를 띄고 방안의 동정을 듣고 있었다.

다른 중국인들이 새벽 두시쯤 하여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복녀는 왕서방의 집 안에 들어 갔다. 복녀의 얼굴에는 분이 하얗게 발리워 있었다.

〈傍点=筆者〉

이것은 「왕서방」의 結婚前後 「복녀」의 심리를 나타낸 곳이다. 「복녀」의 마음 속에 「검은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나 「왕서방」이 애껴오던 머리를 「새색씨의 의견에 의해 짧았다」는 데 나오는 「복녀」의 반응이 바로 「홍!」이다. 그리고 결혼식날 「눈에 살기를 띄고 집 모퉁이에 서 있었다」고 하는 것은 모두 「복녀」의 질투의 감정이 역력히 나타난 것이다. 더우기 손님들이 전부 돌아가고 왕서방과 새색씨만 남게 되었을 때 「복녀」가 「분을 하얗게 바르고」 나타난 것은 새색씨에 대한 競爭意識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말하자면 「복녀」는 「왕서방」에게 愛情을 느낀 것이 분명해진다.

「복녀」가 단지 經濟的 解決을 위해 몸을 팔기만 했다면 굳이 「왕서방」이 아닌 딴 사람을 擇하면 그만일 것이다. 「복녀」는 「왕서방」에게 愛情을 느끼고 새색씨에 대한 질투가 결과적으로 「복녀」를 죽게 한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복녀」의 道德的 墮落에 대한 처벌로써 作者는 「복녀」를 죽인 것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복녀」와 「왕서방」과의 關係는 「왕서방」의 立場에서는 돈 주고 사는 것이 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나 「복녀」는 「왕서방」과 남편과의 差異를 具體的으로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男便보다도 「왕서방」이 男便口實以上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 때에 「복녀」는 남편은 남편, 손님은 손님으로 區分하고 이에 대처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왕서방」이 새 색시를 얻게 될 때 「복녀」는 「왕서방」 아닌 딴 사람을 또 붙들면 경제적 해결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복녀」는 남편과 「손님」과를 混同하고 있다. 이것은 貞操가 가지는 道德的 價値를 이해하지 못한 때문이다. 그만큼 「복녀」는 無知한 것이다.

말하자면 이 作品은 「복녀」라는 한 女人이 道德的 判斷이나 決定을 내릴 수 없는 無知에서 오는 悲劇을 그린 小説이라고 볼 수 있다.

環境을 가난한 것으로 내세우는 것은 플롯 全體에 必要한 背景으로 提示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같은 時期에 發表된 『明文』에서 盲信의 悲劇을 그린 것과 類似하다.

이 作品이 發表되던 1925年 前後는 「푸로」文學이 왕성한 時期다. 文壇의 霧圍氣가 푸로文學으로 기울어진 때다.

대체로 푸로文學에서는 人間의 不幸을 가난(環境)에서 찾았고 또 그런 作品이 나왔다. 푸로문학을 옹호하는 批評이 또 그랬다.

東仁은 푸로文學을 生理的으로 싫어했을 뿐 아니라 作品을 製作하는데 있어서도 그 反對의 立場에 섰다. 人間의 悲劇은 가난 때문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小説로 表現하고 싶었던 것이다.

만약 東仁이 가난한 環境을 얘기하고 싶었고 그것을 強調하고 싶었더라면 좀 더 東仁은 「복녀」의 內面을 肯定的으로 봤을 것이다. 그러나 東仁은 「복녀」를 어디까지나 否定的으로 보고 있다.

이 作品은 그 形式에 있어서도 『明文』과 같이, 시간을 惝恍惝恍 뛰어 넘으면서 一瀉千里로 叙述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短篇이 가지는 「人生의 斷面」을 提示한 것이 아니라 長篇에서처럼 「人生全體」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 作品에 나타난 시간을 「복녀」가 結婚한 후부터 죽을 때까지만 計算해 보더라도 6年間이다. 이 6年間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200字 原稿紙 45枚안에 縮略시켜 놓고 있다. 시간의 대담한 省略과 結末을 向하여 直線的으로 달려가는 形式을 擇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은 古代小說과도 類似하다. 그리고 東仁은 이런 形式으로 이 후에도 많이 作品을 製作하고 있다.

이 作品은 作家의 作中人物에 대한 專斷的 判斷을 내리는 點⁹⁾은 어느 作品에서나 마찬가지이지만 이야기 自體에 대해서는 比較的 事件만을 提示하고 事件의 의미를 讀者가 판단하도록 한 點은 그 以前 作品에 比해 進一步한 點이 있다. 그러면서도 쿠크쿠크 作者는 作品의 表面에 얼굴을 내밀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도 東仁이 完全히 客觀的 立場을 取하지 못하는 데서 온 것이다. 가령 平壤府의 기자묘 주변의 나무에서 송충이잡이를 하는데 빈번할 女子들을 人夫로 썼다는 事實을 提示하고는 갑자기 팔호를 해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뜻으로」라는 作者의 말을 혼잣말처럼 지껄린다. 그것은 作者가 얼굴을 내밀어 正當은 것 밖에 되지 않는다.¹⁰⁾

이 作品은 『明文』과 마찬가지로 그 手法에 있어서는 長篇小說의 手法이면서도 作中人物은 長篇에서 다룬 만한 人物들이 못되고 있다, 主人公의 內容의 貧弱을, 시간을 惝恍惝恍 뛰어 넘으면서 重要한 대목만을 叙述해 나가는 데서 오는 簡潔性은 있지만 作品이 주는 情緒의 貧困을 隨伴하고 있다.

이런 弱點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이 作品은 文章에 있어서나 人物描寫에 있어서나 素材의 處理에 있어서나, 作家가 作品과의 거리를 維持하고 있는

9) 千二斗: 韓國現代小說論. 형설출판사. 1969. P. 28.

10) 拙稿: 金東仁의 小說研究 「碩士學位論文(高大)」 1967. P. 45.

点等이 그 以前의 作品들보다 크게 앞서고 있다. 特히 平安道地方의 方言을 적절하게 구사하여 人物의 個性을 뚜렷이 부각시킨 점은 커다란 進歩라고 할 수 있다.

(4) 其 他

이 밖에도 이 時期에 나온 作品으로는 女人(1929년 12월부터 別冊坤 및 懸星연재), 시골황서방(1925년 6월 開關), 송둥이(1929년 12월 東亞日報), 딸의 業을 이으려고(1927년 朝鮮文壇), 정희(1925년 5월부터 朝鮮文壇에 연재), X씨(1925년 1월 東亞日報), 눈보라(1925년 東亞日報)등이 있다.

『女人』은 東仁의 女人 遍歷史다. 말하자면 그의 女人과의 關係를 自叙傳式으로 記錄한 小說이다. 嚴密한 의미에서는 小說이라기 보다 手記라고 보는 것이 좋다.

이 作品은 아내의 出奔과 再婚을 계기로 過去에 關係한 女人들과의 清算을 생각하면서 整理해 놓은 것이라고 作者는 말하고 있다. 그 女人들이라는 것이 또한 모두 妓生들이다. 그의 女人遍歷은 妓生들과의 것이었고 따라서 정신적 愛情을 拒否한 肉體的인 것에 기울어져 있다. 이 作品은 作品으로서의 價値보다 東仁의 女人觀을 파악할 수 있어서 東仁을 理解하는데 도움을 주는 作品이다.

其他의 作品은 凡作에 屬한다. 다만 東仁이 小說의 소재를 多樣하게 찾았다는 데 눈을 돌린 必要가 있다. 시골농부인 「황서방」, 下人인 「송둥이」, 가짜의사인 「홍선생」등을 選擇하고 1920年代의 韓國의 한 모습을 그렸다는 點이다.

Ⅳ 洗練과 深化

第2期에 屬하는 作品들을 概括하면 第1期에 屬하는 作品들 보다 우선 문장이 크게 洗練돼 있다.

(A) ① 隱微의 생각과 熾烈의 생각이 發하여 公연히 심장을 뛰놀리며 일어 섰다

않았다.

② 곁에 사람이 있는 고티로 남작이 돌아갔을 줄은 확신하면서도 만일 있었다면 하는 의심이 나는 고티로 그는 가만가만히 머리를 그편으로 돌렸다.

③ 그는 자기에게 부끄럽지 않고 남작이 알아 들어야 된다는 조건 아래서 할 말을 복안하여 보았다. 한번 지어서 점열한 후 교정을 가하고...

〈傍点=筆者〉

(B) 시인에게 말한다면, 그런 경치는 봄에라야만 적당하다고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감상적 소년에게는 가을이라도 관계가 없었다. 어두운 밤과 밝은 문창과 단란한 가정, 플론드의 계집애, 필레가 보았으면 한쪽의 그림이 되었을 것이다. 피네가 보았다면 몇줄의 시를 읊었을 것이다.

(A)는 第1期에 屬하는 『약한자의 슬픔』에서 뽑은 것이다. 漢字式 表現이 到處에서 發見되고 문장도 거칠다. 그만큼 미숙한 데가 있었다.

그러나 (B)는 自傳的 小說 『女人』에서 뽑은 것이다. 보는 대로 이만큼 문장이 세련되었다. 오늘날의 문장으로서도 과히 손색이 없다.

별저 第1期の 未熟이 2期에 오면 완전히 洗練·成熟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한 作家의 커다란 發展이다.

形式에 있어서는 아직도 실험을 계속하면서 여러가지 方法을 試圖하고 있다.

初期作 『배따라기』에서 보여 준 中心人物이 아닌 者가 中心人物을 이야기 하는 方法(Minor character tells main character's story)¹¹⁾이 第2期에서는 『遺書』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배따라기』에서 說話者인 「나」를 통해서 배따라기(出船歌)의 주인공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처럼 『遺書』에서도 說話者인 「나」가 登場하여 화자인 「O」와 그의 아내인 「봉선」 및 그녀의 情夫이자 6寸 오빠인 「A」의 이야기를 叙述하고 있다. 이런 方法은 후에 『狂畫師』, 『狂炎 쏘나타』, 『붉은 산』등에서도 채용된 方法이다.

11) Cleanth Brooks & Robert Penn Warren: Understanding Fiction,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Inc. 1959. p.148

그런데 이 방법은 자칫하면 作家가 作品의 前面에 얼굴을 내미는 것과 같은 印象을 가져 온다. 特히 東仁小說에 나오는 說話者는 대체로 東仁의 체취를 強하게 풍기고 있다. 때로는 觀察者의 立場에서 서술되던 소설에서도 東仁은 作品의 到處에서 얼굴을 내밀어 「말참견」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小說에서 觀察者的 스타일과 說話者的 스타일이 混用으로¹²⁾ 作品의 視点에 混亂이 일어나고 短篇으로서의 單一한 印象과 效果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여봅시요. 이제 전개될 ○○씨의 작색하고 감독하는 일장의 연극을 보아주십시오. 희극이 될까, 비극이 될까, 활극이 될까는 미리 말하고자 아니합니다. ○와 그의 아내와 A씨 세명 광대가 출연하는 이 연극은 마침내 막이 열렸습니다. 오 늘밤 늦어도 내일 아침으로는 이 일장의 큰 연극은 결말을 맺었습니다. 결말이 상쾌하게 맺어지거든 박수갈채를 원합니다.

위에 인용한 것은 『遺書』에서 뽑은 것이다. 작자는 대담하게 作品의 前面에서 마치 無聲映畫 시대의 辯士처럼 해설을 겸한 豫告까지 하고 있다. 『감자』나 『明文』의 경우에도 樣相이 약간 다를 뿐 얼굴을 내밀어 讀者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대목이 많다.

事件展開에 있어서도 短篇小說이 가져야 할 치밀함이 없다. 長篇小說처럼 일사천리로 시간을 경충경충 뛰어넘고 있다. 微視的인 描寫가 아니라 巨視的인 서술— 이것이 東仁小說의 한 특징이다. 『감자』나 『明文』의 경우 이점이 두드러지고 그것이 作品의 效果를 半減하고 있다.

이 第2期의 作品의 主題는 「無知의 悲劇」을 그린 것이 主流를 이루고 있다. 그것은 初期의 『약한자의 슬픔』에서 보여 준 것이 연장이다.

초기의 『약한자의 슬픔』, 『거지른 터』등에서 보여준 無知에서 오는 悲劇은 作品論에서 考察한 대로 『遺書』나 『明文』이나 『감자』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좀 더 悲劇을 形成化하는 일이 세련되었고 그것이 深化擴大되었다는 점이 다르다.

12) S. E. Solberg : 草創期の 세 小說 「現代文學 99號」 1963. P. 261

V 結

작가의 變貌는 成長과 深化의 過程을 겪게 되는 것이 하나의 正道일 것이다. 東仁의 경우 초기에서 보여 준 未熟性이 第2期에 오면 상당히 整理되고 成熟했음을 보았다. 特히 문장의 세련은 놀라운 바 있고 主題를 形成化하는 技術도 커다란 發展을 가져 왔다. 初期作들에서 보여준 必然性이 缺如된 構成이 第2期에 오면 거의 완벽하게 짜임새를 갖고 있다. 『약한자의 슬픔』 『거처론 터』, 『마흔의 열은者』에서 보여 준 納得할 수 없는 事件 展開가 『감자』나 『明文』에 오면 전연 無理가 없도록 展開되고 있다.

이것은 작가의 변모인 동시에 成長·發展이다. 不過 5·6年 사이에 이만큼 成長을 가져온 작가도 흔하지는 않다. 그만큼 東仁은 小說에 대한 집념이 깊었고 本格小說의 建設을 위해 온 情熱을 쏟은 結果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 그 미숙한 점이 도처에 發見된다. 가장 눈에 거슬리는 것은 작가가 작품의 前面에 얼굴을 내미는 일이고, 事件展開에 있어서 微視의인 描寫를 省略한 點이다. 이런 未熟이 어떻게 변모되어 갔는가 하는 것은 第3期, 第4期의 小說考에서 考察하게 될 것이다.

參考文獻 및 論文

- 東仁全集 2, 7, 8, 10卷, 서울 弘字出版社, 1967
趙演鉉: 韓國現代文學史, 서울, 人間社, 1961
 〃 : 韓國現代作家論, 서울, 文明社, 1970
千二斗: 韓國現代小說論, 大邱, 형설출판사, 1969
金宇鍾: 韓國現代小說史, 서울, 宣明文化社, 1968
金東里: 文學와 人間, 서울, 青春社, 1952
姜仁淑: 韓國現代作家論, 서울, 同和出版公社, 1971
白 鐵: 國文學全史, 서울, 新丘文化社, 1960

- 鄭漢模: 現代作家研究, 서울, 凡潮社, 1960
- Cleanth Brooks & Robert Penn Warren: Understanding Fiction,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Inc, 1959
- 韓國現代文學의 再整理 ②「金東仁篇」「文學思想 2」1972, 11
- Solberg: 初創期の 世小説「現代文學」99, 1963, 3
- 朴英熙: 現代韓國文學史「思想界」1958.4月號~12月號
- 朴英熙: 初創期の 文壇側面史「現代文學」58, 1959, 10
- 洪曉民: 琴童 金東仁論「現代文學」58, 1959, 10
// 韓國文壇側面史「現代文學」45, 1958, 9
- 拙稿: 金東仁의 小說研究 「碩士學位論文(高大)」1967